

HOT ISSUE

핵 슝모있는 적극행정 2020년 경진대회 우수사례

일깨워라 ! 당신의 적극행정을 향한 열정과 본능 !



최우수상 _ 전라북도 자연재난과 재난관리기금 긴급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업종 방역수칙 자율준수 촉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심각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준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3월!

<p>3.22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4.5.) 	<p>3.23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방침 확정(개소당 70만원, 도 기금 100% 부담)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긴급개최 ▶ 기금운용계획 변경
<p>3.26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 예상액의 80% 선지급 (도 → 시군) <p>3.27일(금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영업주에게 1차 지급 완료 ▶ 주말 종교활동이 우려되는 개신교 종교시설에 최우선 지급(3,121개소) 	<p>4.1일</p> <div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지급방침 결정 10일만에</p> <p>13,406개소 / 94억원 지급</p> </div>

전북도민일보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001면 종합

좋은건 같이... 道 코로나정책 전국 확대

행정명령대상 시설 지원금 대구·대전 등 잇따라 추진

행정명령대상 시설 지원금 대구·대전 등 잇따라 추진

전북도가 추진 중인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인원수는 종교 시설(신선지 제외), PC방, 노래방, 학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 30만원의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유흥업에 관여하는 있는 업종에 대해 보상방안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PC방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서

울 김남규는 자택에 유압을 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 경남 진주시는 유압인 행정명령대상시설에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세균 총리가 전라도의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수범사례로 강조한 결과다.

아울러 도내 시군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한 지원을 줬다. 또 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PC방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서

울 김남규는 자택에 유압을 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 경남 진주시는 유압인 행정명령대상시설에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세균 총리가 전라도의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수범사례로 강조한 결과다.

아울러 도내 시군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한 지원을 줬다. 또 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PC방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서



전라북도의 신속한 결정으로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투입하여
운영제한시설 1만3천여곳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긴급지원으로 해당 시설들의 방역사항 준수 및 운영 중단 참여를
유도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수상 _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환경정책 추진 -전국 최초 환경오염우려지역 환경조사

익산시 장점마을 사건 이후, 유사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배출사업장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유해환경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민일보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002면 종합

전북도, 환경유해요소 선제 차단 '온힘'

음해 주요업무 브리핑서 의지 강조
악취·미세먼지·폐기물 집중 관리
정책방향 사후관리보다 예방 중점

전북도 환경보전과 22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도민이 체감하고 인민에게 살 수 있는 생태환경 구현을 위한 4대 정책 목표와 17개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이중에서도 올해 도정 10대 핵심프로젝트인 '악취·미세먼지·폐기물 유해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다.

도는 유해환경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악취·음향·폐기물·미세먼지, 인민만생사업장 32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환경조사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도 환경분쟁예방IT에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기도 하다.

환경분쟁예방IT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 이후 환경민원에 대한 신속 해결을 위해 행정부처사 후조부 꾸러민 조차이다. 도 환경보

전과와 환경관리과를 비롯해 보건환경연구원 내 대기환경과, 먹는물공서과, 산업폐기물과 등 5개 부서가 머리를 맞댔다. 이번이 추진되는 환경조사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상반기에는 시설의 인허가 시점이나 운영현황 등 일반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일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오염도 검사의 경우 신고불일 뿐 아니라 측정·분석이 가능한 정 항체에 대해 검사가 진행된다. 인·허가 사항 외의 추가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명 조치를 내려질 전망이다.

측정·분석 기관이 환경적인 인력과 장비 등을 고려해 민원발생사업장 위주도 상반기에 우선 검사를 진행한다. 문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하반기에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주민 건강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대비 7%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전복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나선다. 도내 미세먼지 주 요인이 되는 생활상연소와 비산먼지,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222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오는 2월 생활상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과 서부지방산림청,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도내 14개

시·군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농업장터, 농업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친다.

그동안에도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긴 했지만 제도 차이에 서 그쳤다.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앞으로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해 생활상 연소 지각 홍보지료를 마련해 농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또 농촌 폐기물 수거·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각 시·군에서는 미세먼지 오염도의 폐기물 발생량, 영농폐기물, 농약잔여물 등 유형별로 일제 수거·처리방안을 마련했다. 불법 행위 지도·단속 역시 적극 이행과 과반 시 폐기물을 부과하는 등 강력 처분에 나선다.

강인태 도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유해요소 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으로 유해환경을 개선해 도민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환경조사 외 여도 유해환경인지 제고를 위한 모든 대응책 을 고민해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1조 3173억 원을 투입,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019년 대비 55%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현기자

민원 발생 후 해결하는 사후관리 체계에서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환경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사업장 인허가 모델을 전면 전환하는 한편

오염도 검사 확대,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청정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수상 _ 전라북도 대도약기획단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소통대로 운영으로 정책공감 및 소통 강화



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 누구나 쉽게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정 및 사회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로 도정 관심층을 확보하고
제안이 정책화가 되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많은 도민이 즐겨찾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 오픈 이후 지속적으로 방문자수가 증가하고 도민과 함께 설계하는
정책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최우수상 _ 김제시

온라인 학습지원 & 청년 일자리로 일석이조. 청년 일자리연계 초등학생 온라인학습 도우미 지원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처음 도입하는 원격수업 시행에 앞서,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정보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01 코로나 19가 바꾼 교육현장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초·중·고 온라인수업 전면시행!

준비없이 시작된 처음 겪는 온라인개학과 원격수업



전북도민일보 조원영 기자 / 2020.4.8.

김제시, 초등학생 온라인개학 도우미 청년일자리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앞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학습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맞춰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학습 도우미를 지원해 온라인학습이 어려운 환경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학습 도우미 지원사업은 김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온라인 학습기기를 보유하고 학습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가정 방문을 통해서 온라인 접속방법과 학습요령 등 교육이 이루어진다.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학부모가 어민이를 돌봐줄 수 없는 학생들에게 온라인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더욱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학습 도우미 지원 기간은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으로, 신청 자격은 일자리 알리미에 등록돼 있는 청년과 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50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취업자로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0일 12시까지 김제시청 인재양성과(540-3939, 3585)에서 신청을 받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온라인 개학을 앞둔 소외계층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계층 간 학습격차를 최소화하고,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학습 지원을, 지역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수상 _ 군산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윈윈(win-win)하는 상생어플 배달의 명수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앱 '배달의 명수' 인기 상한가

백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입력 : 2020.04.07 17:50 |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앱 '배달의 명수'

전북 군산시가 개발해 운영 중인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100여곳에서
는 배달의 명수 벤치마킹을 위해 군산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민간 배달업인 '배달의민족'에 맞서 수수료와 광고
료가 없는 공공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군산시는 지역상품권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 상생어플
배달의 명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는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자립형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수상 _ 정읍시

수년 묵은 인도점유 고질민원 해결



도로(인도) 내에 상가 물품이 수년간 방치되어 보행자의 인도 통행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질 민원을 포기하지 않고 담당자의 노력으로 계도하여 해결함으로써 보행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도시 미관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